

2011. 2.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루가 1, 27)

어머니에서 아들로

기욤-조셉(윌리엄 요셉) 샤미나드

그 날...

1801년 2월 2일

신심회 창설...

마리아니스트 가족의 시작...

1801년 2월 2일, 두 달간의 성찰과 준비 끝에 [평신도] 신심회의 창설 구성원들은 성서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한다.

"저(세례명만)는, 하느님의 종이며 사도로 부터 내려오는 로마 카톨릭 성교회의 자녀로서
저를 바치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 공경에 저를 봉헌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공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
달려있는 만큼 마리아께서 공경받으시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저의 도움되시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들 또한 저의 도움이 될 것입니
다!" (Agmar 47, 2, 11)

그날의 봉헌자 : 12명

베르나르 로티(Bernard Rotis), 신부

다르비냐크와 루이-아르노 라파르그 (Darbignac et Louis-Arnaud Lafargue),

군대를 막 제대한 젊은이

레이몽 라파르그 (Raymond Lafargue) 27세, 교사

장 -바티스트 에스뜨브네(Jean-Baptiste Estebenet)

<루이 -아르노의 조카 (Louis-Arnaud)>

24세, 교사, 기숙사 사감

에티엔느 뒤코 (Etienne Ducot), 25세, 구두짓는이

프랑스와 따삐(François Tapy), 23세

장 -바티스트 뒤송(Jean-Baptiste Duchon), 19세, 신학생

삐에르 캄드빌(Pierre Capdeville), 신학생,

1802년 2월 선종

삐에르 뒤보와 알렉상드르 뒤보(Pierre et Alexandre Dubosq)



"1801년 내내 회원모집은 자격에 대한 걱정으로 특징지어졌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무관심한 이들을 불타오르게할 가정에 불을 지피는 것에 관한 일인 만큼 열성적인 이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결국 첫 해의 모집자들 가운데 다수는 창립자나 마찬가지로. " (J. Verrier, Jalons II, pp. 73-77)

그 이후...

1801. 3. 25. : 신심회의 여성 공동체의 시작

첫 번째 9명의 구성원 중 : 마리-테레즈 드 라무르즈...

성인들 공동체의 시작 : 남자 - 1802,

여자 - 1804, 사제들 - 1804

1804 : 아델 드 트랑펠레옹께서 « 작은회 » 설립

작은회는 1808년부터 보르도 신심회와 가까워지기 시작하여

1809년부터 세상안에서 봉헌된 삶을 살고자하는 시도들로 성장함.

1816 : "작은회" 의 아델과 다섯명의 구성원은 **마리아의 딸 수도회**를 창립함.

1817 : 5월 **마리아회**를 설립하기 위해 5명의 신심회원들이 샤미나드 신부님께 자신을 바침.



“그녀가 네 머리를 부셨고,
언제나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

성 필베르 드 그랑 리외 성당의 색유리 (1750)

(Saint Philbert de Grand Lieu)

샤미나드 말씀

"우리는 아직 아주 약한 아동기에 있으나 우리의 장엄하신 어머니께 대한 신뢰에는 흔들림이없습니
다...그분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때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들을 쟁취하게 하십니다."

(L II – 343 , 1825. 5. 19. M. 까이에에게)

"저는 매일 오직 거룩한 동정녀께로 다시 달려갈 뿐입니다."

(L II – 575, 1831.1.20. M. 랄란느에게)

"저는 이렇게 중대한 시기와 상황가운데 제 스스로가 마리아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
로 마리아회의 운명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마리아께 맡겨드립니다."

(L. III – 640, 1832. 8. 23. M. 랄란느에게)

"오래전부터 저와 다른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 저는 오직 숭고하신 동정녀께 대한
공경을 전파하고 매일 그분의 가족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배가시키기위해서만 살며 숨습니다."

(L. II-381, 1825. 12. 5. 오슈의 신학생들에게)

"마리아께 대한 당신의 공경이 커감에 따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영감을 더
욱 잘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L. III – 661, 1833.1.23. M. 랄란느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마리아회의 창립자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이시고, 수도회가 구성된 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된 것입니다.

수도회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가난한 대리자일 뿐입니다. 초기 사명들을 선택한 것도
그분이시고 매일 그것을 계속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레옹 메이에, P. Léon Meyer 신부 - Inquisitio, 186쪽)

물론 이 생각은 모든 마리아니스트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은 원죄없으신 잉태의 표시아래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

그 옛날 콘스탄틴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천상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표시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 ’"

(L. II-381, 1825.12.5. 오슈의 신학생들에게)

마리아와 함께 한 여정



빠리그 : 생 프롱 주교좌성당 (Cathédrale St Front à Périgueux.)
예수 탄생예고와 성모승천 을 조각한 벽장식

어린 기욤(윌리엄)은 초기에 그의 어머니를 통해 마리아께 대한
신앙심을 배웠고 자신의 시간을 봉헌하므로써 마리아께 대한 효성이
스며들게 했다.

베르들레의 성모 (NOTRE-DAME DE VERDELAIS)



12살경 기욤-조셉(윌리엄 요셉)은 류시당에서 베르들레의 성모 성당까지 80Km를 걸어갔다.

그는 놀던중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다친 발의 치유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를 위해 그의 큰 형님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상처는 절망적으로 보였으나 순례를 약속한 후 치유되었으므로

사미나드 신부는 늘 그것을 기적으로 여겼다.

류시당 : 바위의 성모 (NOTRE-DAME DU ROC A MUSSIDAN)



류시당의 순례지는 성 샤를르(성 카를로스) 소신학교가 관리하는 성지로 잦은 기도 모임과 순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교구의 간단한 교리 교육을 통해 몇가지 기도로 마리아께 대한 경의를 표하지 않고는 하루도 지나치지 않았으며 특히 마리아의 덕행중 하나라도 본받지 않고 지나친 적이 없었던 기욤은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대한 성대한 봉헌을 하도록 초대되었다.

학교 자체가 깊은 마리아 정신에 활력을 주고 있었고 경당은 원죄없으신 마리아께 봉헌되었으며 거기서 학생들의 마리아 신심회가 모이곤 했다

1776년 성 샤를르 사제들의 모임에 들어가, 1785년 사제 서품을 받은 기욤-조셉(윌리엄 요셉)은 바위의 성모 경당에서 정기적으로 토요일 미사를 집전한다.

그는 그곳에서 형님인 세레자 요한 (Jean-Baptiste)과 함께 로사리오 신심회 회원이 된다.

그 회원들은 모든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알고 마리아를 본받고 마리아의 사랑을 성장시키며, 예수와 마리아의 겸손을 본받고, 그분들의 가난, 거룩함, 순명... 하느님의 뜻을 따름..., 영혼들의 구원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

거룩한 동정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Verrier, Jalons I).

매우 독특한 성모상은 육화의 두 가지 측면을 합해 놓았다.

아기 예수와 그리스도의 주검.

마리아는 아들 곁에서 순명의 길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이 둘을 다 품고 계신다. 우리 또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목상하자 !

사라고사 : 기둥의 성모 (NOTRE-DAME DU PILIER A SARAGOSSE)



보르도에서 자주 아주 위험한 상황들, 결코 쉽지 않은 7년동안의 사목을 한 후 망명의 순간이 왔다.

우리는 샬미나드 신부가 사라고사의 수호자이신 기둥의 성모님 축일 전야인 1797년10월 11일 사라고사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안다.

그곳에서 지낼 3년은 그의 삶에 마리아께 대한 열정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뒤로 물러서는 시기, 이탈의 시기, 기도, 봉헌 그리고 교회의 영성, 선교사다운 영성을 준비하는 집중적인 시기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섬김

마리아께서는 특별히 " 종교적 무관심이라는 극심한 이단을 거슬러 새로운 승리를 예정하고 계시다." 는 그 어느때 보다 더 한 확신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활동을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보호아래 둔다.

프랑스로 되돌아 온지 얼마되지 않은 1800년 12월 8일 그는 보르도에서 젊은이들의 신심회를 시작한다. 그 신심회는 1801년 2월 2일 벌써 서약을 하고 1801년 3월 25일 에는 젊은 여성들의 첫 신심회원들이 서약을 한다.

이 모든 날들은 마리아의 여정과 관련된 날들이다.

또한 보르도의 아르노-미끄(Arnaud-Miqueu)가에 창립자의 행운의 첫 경당이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께 봉헌된것으로 보인다. (cf. E.F. I 157). 그러므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특별한 애정으로 기념하는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의 수호축일은 항상 아주 자연스럽게 12월 8일이 될 것이다.

부르심에 충실한 샬미나드 신부는 마리아와의 계약을 맺은 같은 선교사적 활력안에서 태어난 다른 공동체들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곁으로 오라고 초대할 것이다.

이 달의 기념일

2일 : 주님 봉헌 축일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 시작
(보르도에서 12명의 첫번째 신심회원들이 마리아께 봉헌함으로...)